

창업 그리고 인생 재도약 '엄마 사장님' 힘찬 희망가

여성가장 지원하는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

광주에 사는 박혜진(여·41)씨는 남편과의 이혼 뒤 남아있는 빚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운영하던 미용실을 접었다. 미용실을 팔아 빚을 갚고 보니 마이너스 통장과 월세 20만 원짜리 원룸만 달랑 남았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 새 인생 찾기에 나섰다. 두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갑수룩 살기가 팍팍해졌고 이혼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도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다. 흐릿하기만 한 희망 대신, 더 내려갈 데 없는 어려운 형편만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 때 접한 희망가게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박씨에게 '희망'의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름다운재단의 도움으로 지난 2010년 2월 초 4000만원의 창업 지원금을 마련, 다시 미용실을 차렸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해 꼬박꼬박 대출금을 갚아온 지 4년. 이제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편견과 싸우며 가게를 꾸려가고 있는 정착한 '어머니' 사장님으로 자리잡았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편견과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성공적인 창업 사례로 소개와 사진작가 조선희씨의 작품 주인공도 됐다. 당시 빌렸던 창업지원금을 갚아가면서 현재 3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아름다운재단의 '희망가게'가 절망 속에 빠져있는 저소득 한부



희망가게

희망의 끝에서 잡은
홀로서기 한줄기 빛
광주에만 27곳 운영

무턱대고 창업했다간
상처와 부채 안고 폐업
상권분석 등 준비 필요

모 여성 가정들에게 희망의 봄노래를 부르게 하는 응원가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현재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사업'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 중인 '희망가게' 수는 모두 146곳으로, 광주에서만 27곳이 운영되고 있다. 희망가게 사업은 한부모 여성 가정의 창업을 지원하는 무담보소액대출 프로그램으로 2004년에 첫발을 내디뎠다. 저소득층 여성 가정과 그 아동에게 자활을 위한 교육과 창업 기회를 부여, 빈곤 탈출의 길을 열어주고 가난의 대물림을 막아 건강한 삶을 이끌어 내는데 도

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눈에 띄는 성과도 나타났다. 아름다운재단측은 희망가게 창업주들의 월 평균 소득이 창업 전 98만원에서 창업 후 253만원으로 2.5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성가장부가 지난해 발표한 일반 한 부모 가족의 월 평균 소득 172만원 보다 1.5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꼬박꼬박 빌린 돈과 이자를 상환, 홀로 서기에 성공한 점포수도 전국에서 21곳(10.3%)에 달하고 광주도 4곳이 생존했다. 저소득 한 부모 여성 가정이라면 지원이 가능하고, 대상자에게 최대 4000만원의 창업자금(운영자금 2000만원, 점포임차보증금 2000만원)을 연리 2%, 7년 상환 조건으로 쓸 수 있다.

단순 후원으로 받아들여지는 점 때문에 혜택을 받으려는 지원자도 적지 않지만 준비 없이 무턱대고 창업했다가 상처와 부채만 안고 폐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2004년 희망가게 1호점 이후 올해까지 문을 연 전국 점포 204곳 중 37곳(폐업률 18.1%)이 이같은 이유 등으로 폐업했다. 광주에서도 34곳 중 3곳(8.8%)이 운영을 이어가지 못했다. 대부분 창업 전 입지·상권 분석 등 충분한 준비가 이뤄지지 못했던 게 가장 큰 이유로 분석됐다.

아름다운재단 관계자는 "다른 단체에서도 한 부모 여성가장을 대상으로 창업대회를 해주는데, 이들 단체와 비교해보면 희망가게는 폐업률이 낮은 편"이라며 "희망가게가 여성 가정들에게 큰 희망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아름다운 재단의 '희망가게'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선정되면	현황과 성과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 지원 프로그램 보증·신용등급 필요없이 무담보소액대출	최대 4000만원 창업자금 (운영자금 2000만원+ 점포임차 보증금 2000만원) 연리 2% 7년 상환조건	2004년부터 시행 전국 146곳·광주 27곳 운영 창업 전 월평균 소득 98만원 창업 이후 253만원으로 늘어



유치원생들의 나무심기

다음달 5일 제69회 식목일을 앞두고 광주 북구청 직원들과 유치원생들이 18일 북구 일곡동 동아 아파트 주변 원충녹지에 무궁화 230주를 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서 고교 교사가 교장 폭행 물의

회식뒤 학교 운영 말다툼 하다 술김 몸싸움으로 번져 말리던 여교사는 중상...발생 석달 교육청 대응 미흡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50대 교사가 교장을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동료 여교사를 크게 다치게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K고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4일 광주 시내 한 커피숍에서 이 학교 S교사(56)가 학교 운영에 대해 교장·교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들은 인근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뒤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다.

다툼 도중 교감은 잠시 자리를 떴고, 술김에 감정이 격해진 A교사는 교장과 언쟁을 이어갔다. 언쟁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교장은 옷이 찢어지며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앞에 있던 학생상담부장인 동료 여교사가 이를 말렸고, 이 과정에서

여교사는 A교사가 휘두른 팔에 얼굴을 맞아 코뼈가 주저앉는 등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까지 받았다.

이에 대해 A교사는 "학교 운영과 학생지도 방식을 놓고 교장·교감·부교장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다. 이를 말리던 여교사가 오른쪽 팔꿈치에 맞아 코뼈를 흘렸다"면서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다. 다음날 교장을 찾아가 사과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커피숍에서는 일반 손님들이 이와 같은 상황을 여과없이 목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도 '교직원간 폭행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월 해당 커피숍을 찾아가 현장조사

를 벌였지만, 업소 측의 비협조로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광주시교육청 감사실 관계자는 "커피숍에 CCTV 녹화본과 상황을 목격한 종업원의 진술 등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 관련자들도 당시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함구해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A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란 사실과 사건 발생 3개월이 다 되도록 이렇다 할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교육청이 초동 조사와 대응에 미흡했던 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체적 사실 관계가 최근에 확인됐다"며 "관련자 모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지리산 반달곰 새끼 5마리 탄생 35마리로 늘어

최근 지리산국립공원에서 반달곰 새끼 5마리가 태어났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지리산에서 이미 반달곰 새끼 3마리가 모두 5마리의 새끼를 낳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태어난 새끼를 합해 지리산의 반달곰 개체는 35마리로 늘었다.

5마리는 지리산에서 2009년 처음 어미 곰이 출산을 한 뒤로 한꺼번에 태어난 수로는 가장 많은 새끼 수다.

공단은 곰에 부착한 위치추적장치 기 배터리를 교체하면서 새끼 5마리를 확인했다. 2007년 러시아에서 들여온 개체(RF-23)는 나무 굴에서 새끼 2마리를 지난달 17일 출산했고 서울대공원에서 도입한 개체(KF-27)는 이달 5일 나무뿌리 아래에서 새끼 1마리를 낳았다. 중국에서 들여온 개체(CF-38)는 11일 새끼 2마리를 바위굴에서 낳았다.

KF-27 새끼는 몸길이 30cm, 몸무게 2.9kg의 수컷이고 CF-38 새끼는 2마리 모두 암컷으로 몸무게가 각각 1.8kg, 2kg이었다. RF-23은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 새끼를 낳아 공단은 울음소리로 출산을 확인했다.

공단은 2020년까지 50마리의 곰이 지리산에서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3~4개월은 어미 곰이 새끼를 양육하는 기간이라 셋길이나 통제된 탐방로는 출입을 자제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인 신용카드 홈채 대출 잠진

○지인의 신용카드를 홈채 대출을 위해 집에서 60만원 상당의 대출을 계산한 20대 여성이 경찰서로

○18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박모(여·27)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3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김모(여·33)씨의 원룸에서 김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김씨가 술을 사러 가는 새 신용카드를 훔쳐 이날 아침 8시까지 인근 톰 소주방에서 마신 술값 58만 원을 계산한 혐의.

○김씨와 박씨는 과거 함께 다방에서 일을 하며 친해진 뒤 자주 만나는 사이였는데, 박씨는 경찰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양주가 먹고 싶어 서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선처를 호소.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hello 모바일

완전할인 요금제 출시 기념

가입 축하 이벤트

★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기본요금 완전무료

매일 5분만 통화하면 기본료가 완전 무료!	다양한 최신 피쳐폰 단말기로 더욱 저렴하게!
<p>11,000원 (기본요금 포함)</p> <p>150분 이상 통화 시 기본료 비교</p> <p>100% 할인</p> <p>0원 (기본요금 포함)</p> <p>헬로 모바일</p>	<p>11,000원 (기본요금 포함)</p> <p>150분 미만 통화 시 기본료 비교</p> <p>50% 할인</p> <p>5,000원 (기본요금 포함)</p> <p>헬로 모바일</p>

큰 LCD화면에 7인치 컬러 LED가 반영하는 슬림디자인

기본기에 충실한 편의 기능들과 시원한 대두면

넓은 카메라, 쉽고 명쾌한 실용적인 나

삼성 애니콜 노리2

LG 외인사베르

삼성 애니콜 미니멀플러

만 고객의 선택! 알뜰폰 1위 헬로모바일 www.cjhellomobile.com

NAVER 광주 소리큐

광고심의필 2012-10-18-1326

국내개발 | 국내생산

소리큐

NEW soriQ 보청기(음성증폭기)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전남대병원 오거리

행복은 소리큐보청기 (본속2층)

학동우체국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

남광주역

TV시청할때 강의들을때 핸드폰 통화할때 대화·상담할때

소리큐 보청기광주 호남지사(제이에스 메디칼) 062) 227-1700